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10월 4일(금)

(윤력 9월 2일)

Пятница

4 Октября 2024 г.

№ 39 (12106)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0월 5일은 국제 교사의 날이다.

김 제니스 멘길리에위츠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23중학교의 체육교사다. 그는 사할린국립대를 졸업했고 학교 지도부에서는 그를 진보적인 교육방법을 도입하는 유능한 전문가로 인정했다. 그의 학생들은 주, 시 경기에서 항상 수상한다. 김 제니스 교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교육국의 표창장,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두마(의회)의 감사장으로 포상되었다.

(취재: 이에식 기자)

단신

사할린에서 선보인 운송의 미래, 수소 열차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 극동 에너지 포럼에서 트랜스마쉬홀딩은 국내 운송 공학 역사상 최초의 수소 연료전지 여객 열차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선보였다.

1520mm 궤간으로 국내에서 유례 없는 독특한 프로젝트는 트랜스마쉬홀딩, 로스아톰, 러시아 철도회사와 사할린 주정부의 공동 노력의 결과물이다.

사할린은 혁신적인 열차 발사를 위한 시범 지역이 될 것이며, 이는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다. 러시아에서 수소 기술 개발의 선두주자 중 하나인 이 섬 지역은 러시아 최초의 동부 수소 클러스터와 실험장을 갖고 있다.

수소 열차 모형은 10월 4일(금)까지 열리는 '사할린의 석유와 가스'극동에너지포럼 일환으로 열린 전시회에서 볼 수 있다.

첫 번째 테스트 샘플 열차는 2025년에 만들 예정이며, 2028년에는 정기 통근 열차 운행이 시작될 예정이다.

사할린 교사가, 러시아 교육부 대회에서 3위

유즈노사할린스크 제32중학교의 물리학 교사 안나 브로살리나가 러시아 교육부 주최 '디지털의 도움' 경연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며 입상했다.

그는 '디지털 학생 도우미 서비스'를 개발하는 아이디어로 수상했다. 그의 프로젝트는 물리학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이 미래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정보 시스템은 학생들이 물리학 관련 직업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교육 기관을 탐색하고, 급여 및 동기 부여 자료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숙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목표에 맞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론 물리학 및 응용 물리학의 전문성을 제공할 것이다.

사할린주, 그린 유라시아 국제 기후 대회에서 또다시 수상

사할린 기후실험은 2023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할린 기후실험의 실천으로 다시 한번 국제 기후대회 '그린 유라시아'에서 우승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 정부 수뇌들이 참석한 예레완 유라시아 경제 포럼에서 사할린주 생태 및 지속 가능한 개발부 장관인 안드레이 사마토브가 환경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사할린주의 성과를 인정받아 상을 수상했다.

사할린주는 2025년 말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사할린 석유와 가스" 극동 에너지 포럼 진행

지난 10월 2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2024 사할린 석유와 가스"극동 에너지 포럼이 열렸다. 올해는 처음으로 대부분의 행사가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주정부 청사 앞 광장에는 주요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의 전시관이 문을 열었다. 이 기업들은 첨단 국내 산업 개발, 기술, 특수 장비는 물론 쌍방향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갖춘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오늘 우리는 제28회 '사할린 석유와 가스'에너지 포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는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있어서 특별한 해입니다. 사할린-2 석유가스 대륙봉 프로젝트 30주년과 러시아 최초의 액화천연가스 플랜트 1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의 시작은 사할린주의 경제와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에너지 부문은 우리 지역 발전의 기초로 남아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을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러시아 서비스의 현지화와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급격히 줄이는 새로운 페이지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선반에 있는 거의 모든 작업은 러시아 회사에서 수행합니다. 지난 몇 년간의 결과로 현지화가 안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환영하면서 포럼 참가자들에게 전했다.

'사할린 에너지'회사의 총책임자 로만 다쉬코브는 올해 포럼이 처음으로 공개 형식으로 개최된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누구나 행사장을 방문할 수 있으며, 회사의 전문가가 모든 스탠드와 전시 품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과 정보를 제공한다.

"사할린 석유와 가스 포럼은 이미 연례 행사로 자리잡았고 앞으로도 여러 플랫폼의 개방형 형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의 기회를 확대하고 젊은이들을 유치할 것입니다.

(3면에 계속)

친애하는 사할린과 쿠릴의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을 기리는 날을 맞아 진심으로 축하를 전합니다!

인류의 발전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지식의 축적과 전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할린과 쿠릴의 어린 주민들의 운명, 섬 지역 및 나라의 운명은 여러분의 전문성, 지혜, 시민적 입장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막중한 책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섬의 학생들은 과목 올림피아드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고, 시험에서 점점 더 높은 성적을 거두며, 인생의 출발점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교육계와 함께 지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지원하고, 현대식 학교 건물을 짓고, 보충 교육을 위한 센터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교사 여러분, 쉽지 않고 중요한 일을 하시는 데 대해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건강, 직장에서의 성공, 행복을 기원합니다!

교사 여러분, 즐거운 기념일 되십시오!

사할린 주지사 왈레리 리마렌코

새고려신문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92,94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10월 5일은 국제교사의 날

김 알렉세이 선생: "학교와 학생을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김 알렉세이 겐구에위츠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2중학교 영어선생이다. 그는 1990년 12월에 사할린의 크라스노고르스크에서 태어났다. 2살때 친척이 있는 옴스크시로 이사를 갔다가 알렉세이가 7학년이 되자 부모는 다시 유즈노사할린스크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새 보금자리가 유즈노사할린스크시가 되었다.

제9동양어문학교 근처에 살고 있어 자연스럽게 그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당시 동양언어는 필수 과목이었다.

"그 당시 이 학교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교육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한국어반에 갔어요. 이 문제는 논의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학우들은 2학년 때부터 한국어와 일본어를 배웠는데 저는 7학년에 시작하려니 많이 힘들었죠."라고 알렉세이가 한국어를 배우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기억속에 남은 한국어 선생은 옆반 학생들을 가르치던 권견자 한국어교사다. 알렉세이가 있었던 학급에는 한국어 선생이 계속 바뀌었다 한다. 주로 대학생들을 겸해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억에 남은 선생님은 없어도 열심히 배운 끝에 9학년때 필수적으로 치르는 한국어시험에서 4점을 받았다.

그는 9학년을 마치고 사할린사범전문학교 영어과에 입학했다. 이것은 알렉세이 본인의 결정으로, 부모는 외동아들의 결정을 반대하지 않았다.

"어머니도 승낙하고 아버지는 항

상 제 결정을 존중하고 응원해줬습니다"라고 알렉세이 선생이 말했다.

사범전문학교에서 초등, 중등 자격의 영어교사과정을 당시 5년 교육 프로그램으로 철저히 이수했다. 보통 이 학교 다른 학과에서는 2년제, 4년제 교육 과정이 있었는데 영어교사 과정만이 가장 긴 5년제였다.

영어를 공부할 때는 미래에 교사가 아닌, 그저 영어전문가로서 활동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교사가 될 꿈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4학년때 처음 학교 실습을 나가보고, 교사라는 직업이 자신에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흥미로웠다고 한다. 그의 첫 실습은 제1리체이에서 했는데 14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시간이 생생하다고 한다.

교사로서 활동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 2012년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시교육관리국을 찾아 영어선생을 필요로 하는 교육기관 목록을 받았다. 그중에서 제22호 학교를 선택했다. 이 학교에서 공부했던 친구도 있었고 이 동네가 낯설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다. 실제로는 아직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 학교는 집에서 좀 멀었지만 그래도 제22학교를 찾아갔다. 그의 여러 사람이 지원서를 냈지만 당시 교장이었던 림마 네크라스와는 그의 지원서를 받아마자 바로 취직시켰다.

"제가 남자여서 그렇게 하셨나 봐요"라고 알렉세이 선생이 웃으면서 말했다. 당시에는 학교에 교사도 많이 부족했고 남자선생도 별로 없



었다. 최근에는 주내에서 젊은 교사 지원 프로그램이 잘 추진되고 있어 학교에 젊은 교사가 꽤 많아졌지만 말이다.

알렉세이는 학교에 입사하면서 바로 사할린국립대 영문과(통신과)에 입학했다. 사실 외국어는, 특히 외국어교사 과정을 통신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데 그 해에는 특별히 사할린사범전문학교 영어교사과 졸업생들을 위해 이 통신 과정을 열었다. 그때 영어교사 졸업반 모두가 사할린국립대에 입학했다.

알렉세이는 그동안 담당교사로서 두 반을 졸업시켰다. 영어교사로서 5학년생부터 가르친 적도 있었고 최근에는 주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올해는 반 담당교사를 하지 않고 있다. 담당교사로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잠깐 이 직에서 벗어나기

로 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학교에서 할 일이 많은데, 특별히 그는 미성년 학생 취업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공부하면서 학교 수업 외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가 학생들에게 시취업센터와 함께 제공하면서 직업프로젝트도 실시하고 있다.

2016년에 알렉세이는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분야에서 활동해보기도 했다. 콩쿠르를 거쳐 주주택공공경리부 장관의 보좌관으로 입사한 후 거의 1년 일했었다. 돌아보면 그 일은 너무 복잡했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감정이 부족했다고 회상한다. 1년이 지난 9월 1일, 개학일에 학교를 찾아갔더니 그를 본 교장선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라고 하여 알렉세이는 바로 응하였다.

"정신적 건강이 우선이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가르친 아이들을 보고싶었어요. 그래서 이들과 얘기를 나눌 겸 새 학년이 시작한 것을 축하할 겸 학교를 찾아갔죠. 그런데..."

다시 돌아오라는 네크라스와 교장선생의 제안은 뜻밖이었다. 그는 학교를 그만 두고 다시 돌아오려는 교사나 학생이나 누구도 봐주지 않고 거절했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도 두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너에게 특별히 준다"고 하는 말에 알렉세이는 교사로서, 좋은 인재로서 인정받은 느낌이었다.

그는 또다시 "학교는 정말 저의 마음에 맞는 곳"이라고 깨달았다.

물론 학교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요즘은 학부모와 관

련해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이는 일도 일어난다. 학생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매번 고민하기도 한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교사의 일이다.

알렉세이는 태권도, 축구를 비롯해 항상 스포츠를 즐기며, 최근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자기 가족, 더 정확히 말하면 10개월의 아들에게 투자하고 있다. 같이 놀고 동화도 읽어주고 특히 시공원 등에서 산책을 많이 한다고 한다. 그리고 아기를 위한 수영장도 다니는데, 아이가 무력무력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재미있고 의미가 있다고 한다.

알렉세이는 2년전에 결혼했다. 운명의 짝은 학교에서 만났는데, 알렉세이와 같은 영어 선생이었다. 아내인 김 워토리아는 2019년에 제22호 학교에 취직했다. 영어교사 경험이 있는 선생이었고 알렉세이보다 5살 연하다. 두 젊은이는 만난 지 얼마 안 돼 서로 마음이 끌렸다. 3년사귀다가 결혼식을 하지 않고 혼인했다. 여행도 같이 다니고 영화도 같이 보고 반려견도 키우는데,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다고 한다.

알렉세이 선생과 학교에 대한 얘기, 교사로서 하는 활동, 가족 이야기 등 긴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교사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편안한 느낌, 밝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현재 김 알렉세이 겐구에위츠 영어교사는 학교와 학생들을 사랑하는 진실된 교사임을 확신한다.

(배순신 본사 기자)

이 모 저 모

쿠나쉬르, 셰프 와실리 예멜리아넨코 주민들에게 요리 대접하고 쇼 촬영

모스크바 셰프이자 요리 블로거 와실리 예멜리아넨코는 유즈노쿠릴스크에서 "와샤가 대접합니다" 쇼의 다음 에피소드를 촬영하고 섬 주민들에게 현지 제품으로 만든 요리를 선보였다. 이는 지방 행정부 보도부에서 전했다.

블로거는 섬 글램핑 지도부의 초대로 유즈노쿠릴스크로 갔다. 요리사 키릴 부닌과 함께 100kg의 차돌박이 쇠고기 스테이크를 요리하고 다시마와 바다 포도를 곁들인 메밀을 함께 제공했다. 그들은 거대한 대가열의 사람들에게 요리를 제공했다. 섬 주민들은 요리를 높이 평가했고 또한 요리사들이 준비한 이 특별한 이벤트를 즐겼다.

На Кунашире шеф-повар Василий Емельяненко накормил жителей своими блюдами и снял шоу

Московский шеф-повар и кулинарный блогер Василий Емельяненко снял очередной выпуск шоу «Вася накормит» в Южно-Курильске и накормил островитян блюдами из местной продукци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айон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Блогер прилетел в Южно-Курильск по приглашению руковод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глэмпинга. Вместе с шеф-поваром комплекса Кириллом Буниным они приготовили 100 килограмм стейков из мраморной говядины, на гарнир была подана гречка с ламинарией и морским виноградом. Вместе им удалось накормить огромную очередь. Жители острова высоко оценили приготовленные блюда. Также им понравился праздник, который устроил шеф-повар.

사할린 주민들, 스쿼트 마라톤으로 여름 시즌 마무리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 제6회 연례 스쿼트 마라톤 대

회에 200여 명의 스포츠 팬들이 모였습니다. 이는 사할린 주 스포츠부의 홍보실이 보도했다.

"해마다 스쿼트 횟수를 늘리고 웨이트 사용을 통해 파워를 높여왔다. 하지만 오늘은 편안한 모드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클래식 스쿼트와 90도 스쿼트, 시간 지연이 있는 90도 스쿼트를 수행해야 했다."라고 케틀벨 리프팅 스포츠의 대가이자 '아나톨리츠으로부터 건강' 운동의 창시자인 안드레이 미로쉬니코브가 말했다.

훈련은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스포츠 이벤트는 경품 추첨으로 더욱 흥미진진해졌다. 참가자들은 자석 사진, 영양 바톤치크, 음료, 아이스크림, 죽, 차 등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Сахалинцы завершили летний сезон марафоном приседани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олее 200 любителей спорта собрались на VI ежегодном марафоне приседаний.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од от года мы прогрессивно двигались по количеству приседаний и увеличивали мощность за счёт использования отягощений. Сегодня ж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в комфортном режиме. Участников ожидали классические приседания, а также в разножке и с поддержкой на определённое время в приседе под углом 90 градусов», — отметил мастер спорта России по гиревому двоеборью и создатель движения «Здоровье от Анатолича» Андрей Мирошников.

Тренировка была настроена так, что справиться мог любой. Спортивное событие сделал интереснее розыгрыш призов. Гости могли получить фотомагниты, питательные батончики, напитки, мороженое, кашу и чай.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올 여름 5만 명의 어린이에게 서비스 제공

2024년 5월부터 8월까지 5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유즈노

사할린스크 공항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는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홍보실이 전했다.

공항에서는 어린이들의 편의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녹색 복도'로 어린이 승객과 에스코트를 위한 모든 비행 전 수속을 패스트트랙 형식으로 별도로 진행했다. 매주 5~20개의 어린이 그룹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아기와 함께 여행하는 보호자를 위해 공항 터미널은 수유실 방문 규칙을 변경했다. 항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탑승권 대신 티켓을 사용하여 아이와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객실 이용에 시간 제한이 없다.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 лето обслужили 50 тысяч детей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 мая по август 2024 года было обслужено более 50 тысяч детей.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эровокзала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В аэропорту делается все для удобства детей: им предоставили зелёный коридор в обслуживании, а все предполётные процедуры юные пассажиры и их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проходили отдельно, в ускоренном формате. Еженедельно сервисом пользовались от 5 до 20 дет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Для взрослых, которые путешествуют с малышами, в аэровокзале изменили правила посещения комнаты матери и ребёнка. Она всегда была бесплатной, но с июля провести время в ней вместе с детьми можно было уже по билету, а не посадочному талону. Также больше нет времен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пребывания в комнате.

우글레고르스크 스포츠 학교, 특이한 배구 경기로 개교 기념

우글레고르스크의 스포츠 학교가 개교일을 기념해 스포츠 팬들을 모아 타월 배구를 했다. 이는 사할린 주 스포츠부 홍보실에서 전했다.

(8면에 계속)

안드레이 칼라친스키 작가, 『조선. 조선 국경에서 러시아 장교의 기록물』 책 소개

지난 10월 2일(수) 안톤 체호브의 '사할린 섬' 책 박물관에서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온 안드레이 칼라친스키 작가와 간담회가 열렸다. 그는 9월말에 출판된 책 『조선. 조선 국경에서 러시아 장교의 기록물』(이하 『조선』)을 사할린 주민들에게 소개했다.

책 『조선』은 두브롭스키 장교의 기록물 중 두 번째 책이다. 이 책의 서문에는 첫 책 『아이군』에 대해 "1900-1904년의 사건들(중국군의 블라고웨센스크 포격, 러시아군의 만주 진입, 러일 전쟁의 시작)을 다루어 독자들에게 매우 따뜻한 호평을 받았다."고 적혀 있다. 『조선』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판되었다.

소설 『조선』은 1907년 조선을 돕기 위한 비밀 작전에 참여한 러시아 장교의 기록물이다. 간담회에서 작가는 사할린 독자들에게 새 책을 선보이며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의 러시아와 조선 관계, 소설의 역사적 재구성에 수반되는 감정적 배경, 그리고 책을 쓸 때 사용한 출처가 무엇인지 이야기했다.

칼라친스키 작가는 20세기 초 극동의 역사는 물론 이조(조선 시대) 마지막 왕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이 책은 고종 왕이 당시 비밀리에 대사들을 평화회담이 열리던 헤이그에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한다. 대사들은 강대국으로부터 조선의 주권을 보장받아야 했다. 이 대표단의 큐레이터는 기록물의 작성자인 러시아 장교였다. 대사들은 블라디보스토크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거쳐 헤이그를 방문했는데 가는 길에 여러 사건을 겪게 된다.

"코리아 역사의 전반적인 맥락이 정확하게 전달된다"고 역사학박사이자 극동연방대학교 이고리 톨스토콜라코브 교수는 강조한다. 저자는 그에게 조언을 부탁하기도 했다. 톨스토콜라코브 교수는 수년 동안 이곳 동양학과와 협력해 사할린, 특히 사할린 주립대학에 잘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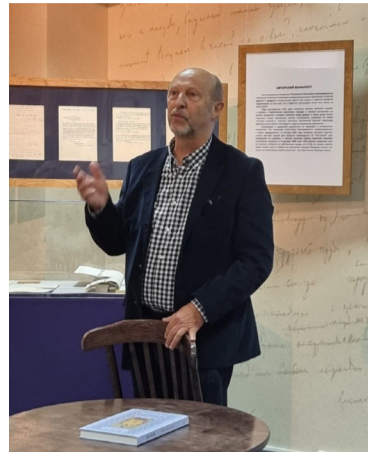
이번 사할린 간담회는 책 『조선』을 소개하는 첫 공개 행사였다. 저자는 사할린에 꽤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할린에서 책 소개발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이 만남은 작가와 독자 모두를 만족시켰다. 이 책은 9월 20일 경 출판되었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 책에 대한 소규모 비공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저자와 출판사는 10-20 권만 사할린으로 가져올 수 있었고 책은 간담

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즉시 매진되었다. 작가의 방문 주요 목적은 "사할린 석유 및 가스" 극동에너지포럼의 문화프로그램 참가로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 일환으로 사할린 무대에 칼라친스키 작가의 희곡 한편이 무대에 올랐다.

안드레이 블라디미로비치 칼라친스키는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어나 극동 국립대학교 언어학부를 졸업하고 레닌그라드 국립대학교 대학원에서 러시아어 문체학을 공부했다. 언론박사 학위를 따냈다. 또한 극동국립대학교, 극동연방대학교, 극동국립경제서비대학교에서 가르쳤으며 최초의 비정부 라디오 및 TV에서 뉴스 부서의 편집자로 일해왔다. 그는 지역 신문에 칼럼과 레포타주를 썼고 '노위에 이즈웨스티야(새소식)'지의 특파원으로 일했으며 러시아 기자동맹 상을 수상했다.

『조선. 조선 국경에서 러시아 장교의 기록물』 책은 335 쪽이다. 필자는 아직 이 책을 완독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필자의 대학졸업논문 지도 교수로, 당시 그는 극동국립대학교 저널리스트 학과 선생이었다.

(배순신 기자)



일제강점기에 사할린 끌려간 동포들 고국에 집 생겼다

인천 논현 5단지 사할린동포회장을 맡고 있는 문정현(85세) 씨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 일제 강점기 국가총동원령에 문 씨 부친은 사할린으로 강제징용 당한 데 이어 일본 본토까지 끌려가 징용살이를 했다.

어머니와 어린 형제와 함께 남은 문 씨는 해방 이후 사할린에서 갇혀 오도가도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러시아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무국적자로 살다가 지난 2007년 영주 귀국하면서 국적이 생겼다.

문 씨는 "이제 사할린에 겪었던 차별과 서러움을 더 이상 겪지 않고 있다"며 "영주 귀국한 동포들이 대한민국에서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주춤했던 '사할린동포 임대주택 지원 사업' 재개에 나섰다. 이한준 사장 취임 이후 집중하고 있는 주거복지 확대 차원으로, 주거소의 계층이 없도록 촘촘한 지원에 나선다.

17일 LH에 따르면 사할린동포 122가구, 총 210명은 최근 안산 고향마을 등 LH 임대주택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들은 재외동포청에서 지난해 선정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자다.

사할린동포들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총동원령 아래 사할린에 끌려가 탄광, 벌목장, 군수공장에서 강제노역하고 해방 이후에는 소련에서 난민으로 전락했다. 이들 동포는 4만 30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 2세만 남아 궁핍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1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LH는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LH는 사할린 한인 전용 아파트인 '안산 고향마을' 세우고 현재까지 약 480세대 770여명의 사할린 동포와 동반 가족들의 주거



를 지원하고 있다.

안산 고향마을 노인회장 주훈춘 씨는 "사할린 동포들은 한국에 일가친척들이 많이 없어 이웃을 가족 삼아서 지낸다"고 했다.

LH는 안산을 중심으로 인천, 경기도, 부산, 경남 등으로 확대해 지난 5월 기준 2290가구의 정착을 돕고 있다. 새로 입국하는 사할린 동포들은 입주희망지역 조사를 토대로 임대주택을 늘리고 있다.

LH는 단순 임대주택 지원을 넘어 가천대와 손잡고 안산 고향마을에 고령자 쉼터도 열었다. 평균 70세가 넘는 입주민 연령을 고려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어 교육 등도 진행한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LH가 마련한 보금자리가 비운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동포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며 "좀 더 나은 곳에서 고국 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인구 연령 및 성별 구성

사할린 주의 인구수는 극동 연방 관구 지역 중 7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전 러시아 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추정해보면 2024년 1월 1일 현재 사할린주의 영구 거주 인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18,01만 명을 포함하여 45,76만 명이다.

올해 초에는 총 24,800명으로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이 지역 전체 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2.7%,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7.3%이다. 남성 1,000명당 여성은 1,115명이다.

남성보다 여성이 우세한 현상은 30세부터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여 39세 이후에는 안정화된다.

2023년 사할린주 거주자의 평균 연령은 41세로 남성 39세, 여성 43세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거주자의 평균 연령은 42세로 남성 41세, 여성 44세이다.

사할린주 인구의 연령 구조를 보면, 근로 연령 미만 인구(0~15세 어린이)는 전체 인구의 18%(2024년 1월 1일 기준 82,400명), 근로 연령 인구(16~62세 남성, 16~57세 여성)의 비중은 59.3%(2024년 1월 1일 현재 271,100명), 근로 연령 이상 인구(남성 63세 이상, 여성 58세 이상) 비중은 22.7%(2024년 1월 1일 현재 104,100명)로 나타났다.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근로연령인구 1,000명당 비근로연령인구는 688명이며, 그 중 0~15세인 사람은 304명, 근로연령 이상인 사람은 384명이다..

(사할린주 통계국)

유즈노사할린스크, "사할린 석유와 가스" 극동 에너지 포럼 진행

(1면의 계속)

특히 학교의 우수한 졸업생들이 진로와 미래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현재 상황뿐만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새로운 도전, 1878년에 시작된 사할린 섬의 유전 및 대륙붕 개발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혁명적 사건, 개혁, 군사적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틀어 사할린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저는 이 포럼이 비즈니스 의제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와 지역 전체를 위한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로만 다쉬코브 대표가 전했다.

포럼에서 가장 큰 파빌리온은 '사할린 에너지'회사가 차지했다. 사할린 주지사와 귀빈들은 이날 회사 프로젝트의 주요 개발 단계를 보여주며 회사의 30년 역사와 향후 주요 개발 전망을 반영하는 전시회를 둘러보았다. 이 파빌리온은 현재 대륙붕 개발 및 석유가스 생산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회사의 최신 개발, 기술 장비 및 특수 기계 샘플을 소개했다.

"사할린 석유와 가스 포럼의 전시회는 수입 기술을 대체하기 위해 고안된 국내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러시아 기업들이 대륙붕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덕분에 석유 가스 단지가 지역 예산의 주요 수입원으로, 산업과 섬 지역 전체의 발전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석유가스 회사들도 전시회에 참가하여 새로운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섬 청년들의 전문적인 자기 성취를 위한 전망을 창출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러시아 석유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대륙붕 프로젝트 및 산업 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것입니다."라고 사할린 주정부 알렉세이 벨리크 총재가 말했다.

수입 대체는 올해 포럼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전시관에서는 외국의 관행을 성공적으로 대체한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다. 참석자들은 해양 프로젝트와 파이프 접합을 위한 복잡한 공정 장비의 부품을 복제하는 새로운 기술을 소개받았다.

포럼의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은 '아이호르' 비즈니스 센터에서 진행된 청년 트랙이었다. 이곳에서는 고등학생, 대학생, 전문대학 졸업생, 젊은 전문가들이 전문 기업의 업무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부한다. 50명의 사할린 주민들은 주요 석유 및 가스 회사에서 일자리, 인턴십 및 연수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사할린 석유와 가스"극동 에너지 포럼은 석유가스 단지의 주요 기업 및 관련 산업, 연방 및 주정부, 국제 투자 커뮤니티, 과학 및 산업 전문가가 대표 간의 상호 작용을 위해 확립된 효과적인 플랫폼이다. 올해 제28회 포럼은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는 총 13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여 해당 분야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주제에 대한 200개 이상의 발표, 30개 세션 및 주제별 토론회를 하며 900명 이상의 기업, 정부 및 일반인 대표가 참가한다. 전시 박람회는 2,00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을 차지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Андрей Калачинский представил «Чосон. Записки русского офицера с 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2 октября в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книги А.П.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в рамках выставочного проекта «Росс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коллекция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музея»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с писателем, автором книги «Чосон. Записки русского офицера с 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Андреем Калачинским. На встречу собралось немало людей, проявивших живой интерес к книге.

Книга «Чосон. Записки русского офицера с 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является второй частью записок офицера Дубровского. «Первая книга «Айгун», посвященная событиям 1900-1904 годов – обстрелу китайцами Благовещенска, вводу русских войск в Манчжурию, началу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 вышла в 2023 году и была очень тепло принята читателями», - говорится в аннотации книги «Чосон. Записки русского офицера с 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Книга издан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Роман «Чосон» - это воспоминания офицера царской армии о его участии в секретной операции помощи Корею в 1907 году. На творческой встрече писатель представил сахалинским читателям новую книгу и рассказал об отношениях России и Кореи с середины XIX до начала XX века, об эмоциональном фоне, сопровождающем историческую реконструкцию романа, какими источниками пользовался автор при написании книги.

Надо отметить, автор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хорошее знание истор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чала 20 века и, конечно, истории последнего короля династии Ли (период Чосон) Кочжона. В книге рассказывается о том, как корейский государь тайно от японцев направил своих послов в Гаагу, где тогда проходила мир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слы должны были добиться от ведущих держав гарантий суверенитета Кореи. Куратором этой делегации становится автор записок. Послы добились в Гаагу через Владивосток и Петербург...

О том, что «общий контекст истории Кореи передан верно» подчеркивает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фессор ДВФУ Игорь Толстоулаков. Именно к нему обратился автор за консультацией. Профессора Толстоулакова хорошо знают и на Сахалине, особенно в СахГУ. Уже много лет известный кореевед сотрудничает с кафедрой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Презентация этой книги на Сахалине стала первым публичн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И довольно удачным. Автор решился на презентацию, зная, что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живает достаточно много корейцев.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было небольшое закрыт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книги. Тираж вышел из печати только в 20-х числа сентября. На Сахалин автор и издатель смогли привезти всего несколько экземпляров, которые вмиг разошлись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презентации. Ведь главная цель приезда писателя - участие в культурной программе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Нефть и газ Сахалина, где Андрей Калачинский представил свою пьесу.

Андрей Владимирович Калачинский - журналист и писатель. Родилс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окончил филологический факультет ДВГУ, аспирантуру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где изучал стилистику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Преподавал в ДВГУ, ДВФУ, ВГУЭС, работал шеф-редактором отделов новостей на первых не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радио и ТВ. Писал колонки и репортажи для местных газет, работал собкором «Новых известий», стал лауреатом премии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335 страниц книги «Чосон. Записки русского офицера с 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мне еще только предстоит прочитать.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у момента, когда смогу это сделать. Тем более, что автор книги - мо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в ДВГУ, руководитель моей дипломной работы.

Виктория Бя

Старинные корейские карты нашлись в Европе

Сеул, 30 сен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Фонд, управляемый Корейской службой наследия, открыл филиал в Париже для содействия усилиям по репатри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из Европы. Это уже третье подобное открытие за рубежом после Японии и США.

По данным фонда, парижский офис Фонда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Кореи за рубежом начнет сотрудничать с Национальной библиотекой Франции с целью поиска старых корейских карт в библиотеке. «Мы ожидаем, что будет найдено около 40 карт, все из которых датируются эпохой Чосон (1392-1910), и мы проведем их совмест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 сообщил газете The Korea Herald представитель фонда. Поиск карт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до 2027 года в Национальной библиотеке Франции (BnF), поскольку Французск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библиотека стремится оптимизировать способы изучения старых азиатских карт в целом. Корея является первым азиатским партнером, который объединился в проекте, отметил чиновник. «Наша работа с BnF

будет сосредоточена на изучении карт и обнародовании результатов посредством симпозиумов, а не на вынесении карт на всеобщее обозрение», - добавил он, имея в виду прошедшую в апреле-июле прошлогоднюю выставку BnF «Джиджи» - старейшей в мире книги, напечатанной с помощью подвижного металлического шрифта, признанной ЮНЕСКО в 2001 году.

По оценкам фонда,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этот месяц по всей Европе разбросано около 50 000 корейских артефактов. По оценкам, в Германии их около 15 000,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 12 000, а во Франции - 6 500. «Тот факт, что Париж является домом ЮНЕСКО и местом, где видно и ощущается растущее культурное влияние Кореи, привлекло к открытию нашего европейского филиала именно там», - 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фонда об открытии последнего офиса. В Японии и США, где в 2013 и 2016 годах были открыты первые и второе зарубеж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хранятся крупнейшие коллекции предметов корейского наследия - около 100 000 и 65 000 экспонатов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ручены стипендии фонда Юрия Тена

Именные стипенди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го Фонда Юрия Тена назначены 20 студентам вузов Иркутска. Свидетельства стипендиатам 27 сентября вручили депутат Госдумы РФ, член попечительского совета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ергей Тен и директор фонда Вера Гашова.

Мероприятие в зале заседаний ИргупС началось с просмотра фильма, рассказывающего о депутате ГД РФ трех созывов, основателе ЗАО «Труд» Юрии Тене. В 1996 году политик и общественный деятель основал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й Фонд. Организация помогает детям с проблемами здоровья, оснащает современными оборудованием медучреждения, поддерживает одаренных детей, приобретает музыкаль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развивает проекты в сфере экологии и журналистики. Более 20 лет Фонд оказывает адресную помощь студентам иркутских вузов. Матери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за 23 года получили 500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преуспевают в спорте, творчестве, науке, имеют активную гражданскую позицию.

В этом году стипендия составила 30000 рублей, для ребят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и планы, отмеч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Фонда.

«Горд, что стал стипендиатом фонда, меня номинировал ректорат, это больш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наю, на что потрачу стипендию - хочу пойти на курсы вождения», - рассказал курсант факультета подготовки следователей и судебных экспертов Восточно-Сибир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МВД России Даниил Дягелев.

Студентка Института экономики, управления и права Иркут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техн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золотая медалистка школы «Точка будущего» Кира Захлебная продолжает блестяще учиться в вузе,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ет в волонтерских проектах.

«Мы все находимся под большим впечатлением от фильма про Юрия Тена, знаем о работе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го фонда, о тех добрых делах, что делает фонд и в рамках аукционов «Нота До» и «Дыхание жизн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курсов. Это большая честь стать участником проекта фонда. Я хочу положить деньги в банк, чтобы накопить на хорошую покупку», - отметила студентка.

Курсант факультета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осточно-Сибир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МВД России Баир Бубнов решил потратить стипендию на самообразование, потому что уверен: нужно постоянно узнавать что-то новое,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пресс-службой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го фонда имени Юрия Тена

ведь мир сегодня стремительно меняется и нельзя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если есть цель.

Церемонию награждения провел сын Юрия Тена, депута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РФ и член попечительского совета фонда Сергей Тен. В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он отметил, что лучших студентов поздравляют в важный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и области день.

«Свою первую стипендию в 2002 году вручал еще мой отец. Для него решение о стипендиальном фонде было естественным, он всегда говорил, что молодым надо помогать. наших лауреатов уже 500 человек. Дорогие ребята, вы все - уже победители, состоявшиеся люди. У вас есть цели, вы не забываете свои увлечения, помогаете другим. Живете активной и наполненной жизнью. Хочу пожелать вам никогда не сдаваться, идти вперед и обязательно иметь активную гражданскую позицию.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и в ваших руках будущее ее будущее, мы надеемся на вас», - напутствовал стипендиатов Сергей Тен.

27 сентября основателю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го Фонда исполнилось бы 73 года. Юрий Михайлович Тен родился на Сахалине. В 1978 окончил Иркут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техн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специальность - горный инженер. В 1989 году создал 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оператив «Труд», который вырос в многоотраслевую группу компаний. Был его президентом, генеральным директором. С 1993 по 2003 Юрий Тен представлял интересы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е России. Умер 21 июля 2003 в Централь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е в Москве после продолжительной болезни. Именем Юрия Тена названа улица в Иркутске, перевал на автодороге «Чита-Хабаровск».

(По материалам СМИ)

Сеул и Пекин обсудят вопросы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Нью-Йорк, 30 сен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Высшие дипломаты Южной Кореи и Китая договорились продолжить встречи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в рамках многосторонних встреч, сигнализируя о встрече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между президентом Юн Сок Ёлем и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НР Си Цзиньпином.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Южной Кореи Чо Тхэ Юль и его китайский коллега Ван И достигли соглашения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в Нью-Йорке в кулуарах Генер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и ООН, чтобы обсудить двусторонние связи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ообщает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еула. Соглашение настоятельно предполагает, что две страны будут настаивать на проведении саммита Юна и Си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АТЭС),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в Перу в ноябре, и саммита АТЭС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кото-

рый состоится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городе Кенджу.

«Оценивая оживленность обменов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между Южной Кореей и Китаем в этом году, обе стороны договорились продолжить обмены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на многосторонних встречах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этого года и работать сообща для достижения существен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на этих встречах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Ван выразил свою полную поддержку проведению Южной Кореей саммита АТЭС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 юго-восточном городе Кенджу и сказал, что будет активно сотрудничать, чтобы помочь достичь плодотвор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согласно сообщению министерства. Ежегодный саммит АТЭС обычно посещают президенты двух стран. Си в последний раз посещал Сеул в июле 2014 года во время правления Пак Кын Хе.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Лидер КНДР вновь посетил пострадавший от наводнения район

29 сентября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посетил пострадавший от наводнения район провинции Пхёнан-Пукто, где руководил ходом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х и строительных работ.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его встретили командиры воинской части, задействованной в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Ким Чен Ын «высоко оценил труд строителей»,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ликвидация последствий стихии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нормальной жизни в пострадавших районах является первоочередной задачей. Эту работу также следует считать частью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я отдалённых районов страны, - отметил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В конце июля в результате сильных ливней уровень воды в реке Амноккан превысил опасный показатель, что привело к затоплению и эвакуации части населения в городе Синьчжу и уезде Ыйчжу-гун провинции Пхёнан-Пукто.

День рождения короля Сэчжона стан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праздником

День рождения короля Сэчжона Великого, который отмечается 15 мая,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будет объявлен национальным праздником.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30 сентябр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день рождения короля Сэчжо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мест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водят различные памят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связанные с деятельностью короля. Если этот день будет отмечаться как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уровень памят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высится. Одновременно 27 мая, дату созд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аэрокосмиче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предложено объявить Днём аэрокосм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оправки к Закону о памятных датах будут подготовлены до 4 ноября.

В РК появится новый орган по проблеме медицинских кадров

При президентском комитете по медицинской реформе решено создать новый орган, который будет заниматься оценкой проблемы нехватки врачей в условиях затянувшейся забастовк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29 сентября агентству Ёнхап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с 20 февраля около 120 тысяч врачей-интернов покинули рабочие места в знак протеста против пла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увеличить ежегодный приём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на 2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Для оценки необходимого количества работник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перспективе орган будет анализировать такие данные как количество выпускников медицинских вузов,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е данные населения и статистику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Он будет состоять из подкомитетов, в каждом из которых будут работать 10-15 экспертов по вопроса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ключая врачей, медсестёр, стоматологов и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медицин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едоставит большую часть прав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групп экспертов частному сектору и группам врачей.

Бесконтактная система оплаты проезда запущена в пилотном режиме

24 сентября на станции «Сонсинёдэ ипку» четвёртой линии Сеульского метрополитена состоялась проверка работы новой бесконтактной системы оплаты проезда Tagless. Данная система позволяет пассажирам оплачивать проезд по Bluetooth с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не прикладывая транспортную карту или смартфон к считывающему устройству. Для оплаты таким способом потребуется скачать приложение Mobile Tmoney. Первый этап тестирования данной системы начался в июне этого года на трёх станциях метрополитена Сеула. Её планируется запустить в течени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на всех станциях.

В Кванчжу пройдёт финал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фестиваля

С 3 по 6 октября в Кванчжу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Намдо пройдёт финал Третье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фестиваля Gwangju Busking World Cup. В отборочном туре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781 музыкальный коллектив из 57 стран, из которых для участия в финале отобраны 32 коллектива из 16 стран. Фина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которые пройдут на площад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18 мая, будут транслироваться в прямом эфире. В числе участников испанская фолк-группа Korgontzi и итальянское трио Supno d'Ajere, представляющее неаполитанскую музыку. РК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ять такие известные рок-группы как Sinchon Blues и Mongni. Коллектив, который займёт первое место, получит приз в размере 50 млн вон (38 тыс. долларов).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пройдут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музыкальной индустрии, детский музыкальный конкурс.

RKI

Рейтинг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Юн Сок Ёля упал до рекордно низкого уровня

Согласно результатам последнего опрос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рейтинги популяр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Юн Сок Ёля и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рухнули до минимальных значений с момента прихода нынешн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 власти.

Так, компания Realmeter по заказу местного издания Energy Economy с 23 по 27 сентября провела исследование среди 2 507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збирателей старше 18 лет. И результаты показали, что работу Юн Сок Ёля положительно оценивают менее 26 процентов респондентов - это новый антирекорд показателя его популярности.

Снижение составило четыре с половиной процент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опросом, проведенным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Предыдущий минимальный показатель поддержки составлял 27 процентов. При этом негативно оцени-

ли работу своего президента 70,8 процента корейцев. Да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впервые превысил отметку в 70%.

Не намного лучше дела обстоят и у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Ее показатель популярности за неделю опустился более чем на пять процентов, составив 29,9. Для сравнения - рейтинг ведуще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вырос на четыре процента, достигнув 43,2.

Как отмечают политологи, на снижение рейтингов президента и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повлияли продолжающиеся политические скандалы, внутренние разногласия в руководстве партии и обвинения в адрес первой леди Ким Кон Хи, которые пошатнули поддержку со стороны консервативного электорат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Из репортеров — в президенты

Сеул, 28 сен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Хван Дэ Ир, старший репортер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агентства Yonhap, ключевого новостного канала Южной Кореи, был назначен в четверг новым генеральным директором и президентом компании. Хван был выбран из трех кандидатов на внеочередном заседании правления Комиссии Корейских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агентств, органа, осуществляющего надзор за руководством Yonhap. Двумя другими кандидатами были Чу Сын Хо,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Yonhap News TV, и Чо Ки Ок, президент и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Yonhap Infomax. Хван начнет свой трехлетний срок полномочий после утверждения на общем собрании акционеров Yonhap 10 октября.

Новый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лся в облас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 Корей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и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информационному агентству Yonhap в качестве репортера в 1990 году. Во время работы в Yonhap он работал корреспондентом в Джакарте и возглавлял различные отделы, включая финансовый и экономический, прежде чем стать редак-

торо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 социального отделов и руководителем отдела контента. В своем манифесте, представленном комиссии, Хван поклялся помочь Yonhap стать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агентством № 1 в Азии, следуя стратегии «A1 + F4», которая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оснащение искусственным интеллектом и то, что он «первым» попадает на новостной сайт, «быстрее» публикует сообщения, основанные на «фактах» и «справедливым» образом.

Чтобы усилить общественную роль Yonhap, Хван пообещал поддержать организацию воссоединения членов семей, разлученных Корейской войной 1950-53 годов, и запустить службы на вьетнамском и тайском языках в дополнение к шести действующим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лужбам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Кроме того, он пообещал создать отдел проверки фактов, обновить хартию этики и руководящие принципы отчетности, чтобы улучшить объективную и сбалансированную отчетность, и вывести компанию из текущего дефицита за счет быстрог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одписок и поиска новых источников заработка.

В Сеуле начали работу ночные беспилотные такси

В Сеуле в тестовом режиме начали работу ночные беспилотные такси.

Пионерами выступили районы на юге Сеула. В ночь с четверга на пятницу на работу там вышли три автомобиля Korando Emotion, оснащенные специальным навигацио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В дальнейшем географию работы беспилотных такси планируют существенно расширить. Кроме того, пока - как для спокойствия пассажиров, так и для езды по узким улицам - работу автоматических систем автомобиля будет подстраховывать водитель-человек. В беспилотном режиме автомобили передвигаются на дорогах, у которых четыре и более полос движения, тогда как человек берет на себя управление, когда приходится ехать до двухполосным трассам или передвигаться по переулкам.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эрии Сеула, пока всё это является своего рода тестовым режимом ночной службы беспи-

лотных такси. Услуга доступна с 11 часов вечера и до 5 утра в рабочие дни - с понедельника по пятницу. Заказать такое такси можно при помощи широк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го в Корею приложения Какао Т, где теперь появилась специальная иконка для заказа беспилот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Интересно, что до конца года данные такси будут доставлять клиентов совершенно бесплатно. Ожидается, что это спровоцирует повышенный спрос на данного вида услуги и приведет к тому, что люди быстрее привыкнут к машинам без водителей.

До сих пор некоторые все же, если верить опросам, неуютно чувствуют себя, когда машиной управляет автомат.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тестового периода планируют увеличить территорию столицы, где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подобные такси, возрастет их количество, а проезд станет платным.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Откуда едут нелегалы

Сеул, 29 сен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Четверо из 10 иностранцев, которые незаконно находились в Южной Коре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ъехали в страну без виз и оставались там сверх безвизового периода, показали данные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прошлого года число нелегалов в Южной Кореи составило 423 675 человек, что составляет 16,9 процента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иностранцев, пребывающих в стране,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Среди нелегалов число тех, кто прибыл в Южную Корею без виз, достигло 190 000, или 44,9 процента. Иностранцам разрешается въезжать в Южную Корею без виз в случаях освобождения от виз (В-1) и транзитным туристам (В-2). Число нелегалов, въехавших в Южную Корею с безвизовым режимом, достигло 169 000, что является

наибольшим показателем для отдельной категории (40 процентов), за ними следуют лица с краткосрочной визой (87 000).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число лиц со статусом В-2 достигло 21 000. Считается, что такие иностранцы незаконно пребывают в Южной Кореи для занят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без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рабочих виз.

По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число тайцев, которые незаконно остались в Южной Кореи, достигло 145 000, что составляет наибольшую долю в 76,3 процента, за ними следуют китайцы с 15 000 и выходцы из Казахстана с 11 000, показали данны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приостановило программы безвизового въезда с Пакистаном в 2001 году и Бангладеш в 2008 году, сославшись на резкий рост числа нелегалов из этих стран.

Сонсу-дон в Сеуле в списке британского журнала Time Out

25 сентября известный британский журнал о путешествиях и культуре Time Out опубликовал рейтинг 38-ми «наиболее потрясающих районов городов мира». Сеульский район Сонсу-дон занял в нём четвёртое место. «Бывший центр кожевенно-обувной и полиграф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егодня превратился в один из самых необычных районо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лицы. Его называют «сеульским Бруклином». Складские здания и заводские цеха из красного кирпича получили новое содержание. Сейчас там открыты модные кафе, бутики и галереи», - сообщает Time Out. Журнал составляет рейтинг наиболее потрясающих районов городов мира с 2018 года.

KBS World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ртовал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энергетический форум «Нефть и газ Сахалина-2024»

2 октя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ос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Нефть и газ Сахалина-2024». В этом году впервые большинство мероприятий открыты для свободного посещения. На площади перед здание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аспахнули двери павильоны ведущих нефтегазовых компаний. Предприятия подготовили обширную программу с информацией о передовых отечественных отраслевых разработках, технологиях и спецтехнике, а также интерактивными и культурными мероприятиями.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к участникам форума обратился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Сегодня мы открываем 28-й энергетический форум «Нефть и газ Сахалина». И я поздравляю всех с этим событием. Этот год для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особый. Мы отмечаем 30-летие шельфового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2» и 15-летие первого в России завода по сжиганию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Запуск нефтегазовых проектов кардинально изменил экономик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жизнь людей. И сегодня энергетический сектор остается основой развития нашего региона. У нас будут развиваться разные отрасли. Мы открываем новую страницу, которая ведет к локализации российских сервисов и радикальному снижению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иностра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Практически вся работа на шельфе сегодня ведется россий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Локализация состоит, и результаты последних нескольких лет это подтверждают.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О «Сахалинская энергия» Роман Дашков отметил, что в этом году форум впервые проходит в открытом формате. Посещение площадок доступно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специалисты компании оказываю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всех стендов и выставочных экземпляров.

- Форум «Нефть и газ Сахалина» уже стал ежегодн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Открытый формат нескольких площадок важно поддерживать в будущем. Он позволяет нам расширить возможности участников, привлечь молодежь, в особенности лучших выпускников школ для того, чтобы ребята определились со своим выбором. Сегодня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знакомиться не только с текущей ситуацией, но и с новыми вызовами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с историей освоения месторождений и шельфа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 которая начинается далеко в 1878 году. Эти времена сопровождалась революционными событиями, реформами, военными действиями. 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й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 жил, работал и вносил результаты в общее развитие нашей страны. Уверен, форум будет нести в себе не только деловую повестку, но и станет праздничным событием для нашего города и всего региона.

Самый большой павильон на форуме принадлежит «Сахалинской энергии». Глава региона совместно с гостями мероприятия осмотрели выставку, которая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б основных этапах развития проектов компании, рассказывает о 30-летней истории предприятия, а также отражает главные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на предстоящие годы. В павильоне представлены последние разработки компании, образцы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и спецтехника,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задействуют на островных шельфовых и нефтегазодобывающих проектах. В павильоне представлены главные подрядчики организации: УК «СИП», IGS ООО «Айлэнд Джeneral Сервисес», ООО «Интра Сахалин», ООО «ГПИ Сахалина», ООО «Газпром трансгаз Томск», АО «Газпром шельфпроект». Экспозиция наглядно демонстрирует вклад нефтегазовых компаний в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региона, в том числе создание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развит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повышение уровня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На выставке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Нефть и газ Сахалина» представлены отечественные компании, которые призваны заместить импортные технологии. Отрадно видеть, что российские предприятия обладают всеми необходимыми компетенциями для обслуживания наших шельфовых проектов.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мы видим новые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отрасли 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целом, так как нефтегазовый комплекс является ключевым источником доходов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На выставке также представлены нефтегазовые компании, которые активно привлекают новые кадры и создают перспективы дл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островной молодежи. Учитывая все это, мы будем и в дальнейшем поддерживать российских нефтяников, содействовать развитию шельфовых проектов и отраслевых сервисных услуг,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В этом году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вопросов форума стало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е. В павильонах представлены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успешно заменившие зарубежные практики. Гостям представили новую технологию копирования деталей сложног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шельфовых проектов и соединения

труб. В павильоне №2 установлен образец водородного поезда и уникальный инженерный VR-тренажер с возможностью управления краном на морской добывающей платформе.

Еще одним важ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работы форума стал молодежный трек, который организован в бизнес-центре «Айхор». Здесь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и, студенты, выпускники профильных вузов и молодые специалисты изучают актуа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работе профиль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50 сахалинцев получают предложения о работе, практике и стажировке в ведущих нефтегазовых компаниях.

Отметим,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энергетический форум «Нефть и газ Сахалина» — это устоявшаяся, эффективная площадка дл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едущих предприятий нефтегаз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и смежных отраслей, федеральн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науки и отраслевых экспертов. В этом году 28-й форум проходит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со 2 по 4 октября. Всего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более 130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ят свыше 200 докладов на самые актуальные темы в сфере, 30 сессий и тематических обсуждений, участниками которых станут свыше 90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бизнеса, власти и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Выставочная экспозиция охватила площадь более 200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На Сахалине отпраздновали годовщину присоединения Донбасса к Росси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числе первых регионов РФ отпраздновала вторую годовщину присоединения ДНР, ЛНР, Запорожской и Херсонской областей к нашей стране. Ровно два года назад в Кремле подвели итоги референдумов, где жители этих четырех территорий подавляющим большинством проголосовали за вхождение в состав России. По распоряж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30 сентября объявлено новы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праздником — Дне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ДНР, ЛНР, Запорожской и Херсонской областей 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 Этот праздник — прежде всего дань уважения истории России. То, что творит сейчас так называемый цивилизованный Запад, — это переписывание, вымарывание мировой истории. Веками русские правители объединяли земли, присоединяя все новые и новые территории. Крым, Новороссия, Тамань — все это наша земля, - поделился руководителе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гражданско-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Росс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й Фугенфиров.

В связи с торжественной датой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парке им. Гагарина организовали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На сцене перед юными и пожилыми зрителями выступили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й ансамбль «Анимэ», Александр Пьянников с песней «Потомки великих людей», Виолетта Любина и Антонина Белошитская - «Россия моя», Жанна Богомолова - «Русский русскому помоги», Катя Счастливая - «Россия моя», дуэт Ника Титова и Сергей Петров - «Главное семья», Ирина Иконникова и объединение современного танца «Индиго» - «Синеокая Россия», Никита Клеванный - «Победа за нами».

- Сегодня очевидно, что это решение должно было быть принято еще раньше, когда в 2014 году жители Донбасса не поддержали события, происходящие в Киеве. 10 лет люди жили под гнетом нацистских бесчинств. Но 2 года назад волевым решением все же было принято: четыре региона захотели вернуться в состав России. За это право сражались наши товарищи на передовой, за это сейчас мои земляки бьются в зоне СВО, а сотни волонтеров оказывают им всю возможную помощь. Мы ежегодно должны вспоминать о том, как тяжело далось жителям Донбасса это решение, сколько они вынесли боли и горя. И, конечно,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нельзя забывать наших героев, которые заплатили высочайшую цену за то, чтобы сегодня жители Донбасса могли назвать себя свободными россиянами, — считает ветеран СВО, учитель истории Юлиан Красавин.

Вместе с островитянами концертом наслаждались гости Сахалина — делегация школьников из донецкого Шахтерска, над которым область два года назад взяла шефство. Уже не первая группа подростков из ДНР посещает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в ознакомительных целях, и приезд ребят к годовщине воссоединения Донбасса с Россией стал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поводом поприветствовать ю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 Россия не могла остаться в стороне от тех ужасов, которые творились в регионах Донбасса последние 10 лет. Там веками жили и живут наши, русские люди. Это наша родная кровь. Каким бы ни было давление коллективного Запада на Россию, она останется негнимою, стойкой страной. ДНР, ЛНР, Запорожье и Херсон были нашими землями, и мы их вернули. Мы снова вместе, как вместе и весь российский народ. Мы сплочены перед любой внешней угрозой, - отмет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Алена Силачева.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которые пришли на патри-

отический концерт, также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о сверстниками из ДНР и обменялись контактами. В донецком Шахтерске ребята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т в аналог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и им есть, о чем рассказать новым приятелям. А юные островитяне готовы поддержать ровесников не только словом, но и делом: южносахалинцы от имени своих школ регулярно собирают для шахтерцев посылки с вещами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и книгами на родн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

- В этом году я вступила в ряды юнарме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Я с гордостью ношу красный берет — знак отличия, который зарабатывается трудом и прилежанием. К «Юнармии» я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потому что считаю себя патриотом нашей страны. И я горжусь тем, что живу в одном городе с ветеранами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ым наша страна стала на четыре региона больше. Мы все должны гордиться нашей негнимою Россией и помогать тем, кто так же, как и мы, теперь называет себя русскими, — рассказала ученица СОШ № 26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фия Судакова.

Помимо концерта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для гостей несколько патриотических площадок. В палатках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Движения Первых»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мог написать письмо солдату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левой почтой его передали в зону СВО. Малышам предложили нарисовать для защитников открытки и рисунки. И, конечно, длинная очередь выстроилась к полевой кухне: всех желающих угостили традиционной солдатской кашей и сладким чаем.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приступают к углубленному изучению точных наук в космических классах

Первы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зан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теме изучения космоса, начались в 25 классах в школ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них ученики пятого года обучения получаю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знания о Вселенной, о путешествиях к другим планетам.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лексей Белик встретился с учениками профильного класса лицея № 2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в форме открытого урока.

Идея создать в островных школах профильные классы родилась в ходе встречи Алексея Белика и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Госкорпорации «Роскосмос» Юрия Борисова. Цель — пробудить в детях интерес к освоению внезем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подвигнуть их к освоению точных наук, а в дальнейшем и к получению инженер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рамках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ек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и «Роскосмоса» первые занятия прошли в ряде школ юга Сахалина.

- Сегодня наш регион подключается к работе по освоению космоса. В Поронайске заверш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трассового измерительного пункта «Сахалин». Он станет частью назем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редств измерений, сбора и обработки информации, а также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запусков всех типов космических аппаратов с космодрома «Восточный». Возможно, вы, первые ученики профильного космического класса, будете работать в этом пункте, следить за запуском ракет-носителей. А может быть и сами отправитесь в космос. Все дороги открыты перед вами. В любом случае учеба в профильном классе будет для вас полезной.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знания помогут вам стать учеными, инженерами, строителями, учителями и врачами, добиться успеха, принести пользу нашему островному региону и родной стране, - сказал, обращаясь к пятиклассникам, Алексей Белик.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едложил школьникам по окончани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трассового измерительного пункта совершить экскурсию на объект. Там они смогут своими глазами увидеть, как специалисты контролируют запуск аппаратов, отправляющихся в космическ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следят за их перемещением по околоземной орбите. Пятиклассники встретили предложение аплодисментами.

- Ученики космических классов будут углубленно изучать математику, физику, информатику, специальный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Также в программу для них включены такие предметы, как инженерия космических систем, баллистика, спутникостроение и дистанционное зондирование Земли,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Пятиклассник Лука Лагин рассказал, что его в космический класс привлек интерес к возможной встрече с внеземным разумом.

- Интересно, есть ли во Вселенной другая жизнь, кроме нашей. Вдруг там в какой-то цивилизации есть магия. Это было бы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Но если я не буду работать в косм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то хотел бы стать инженером-конструктором, - сообщил Лука.

- А мне хотелось бы знать, сможем ли мы когда-нибудь переселиться на другие планеты. И я хочу стать космонавтом, хоть это и очень опасно, - сказала ученица лицея № 2 Ксения Святая.

В дальнейшем космические классы будут создаваться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논의의 장 세계한인회장대회 막을라

한인회장들, '나의 조국, My Korea' 등 다양한 프로그램 소화.

4일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참가 이상덕 동포청장 "재외동포와 본국, 함께 호흡하며 한민족 공동체의 총체적 역량 키워 나가자는 취지"

'2024년 세계한인회장대회'가 10월 1일(화) 오후 6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막을 올렸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나인출 대양주한인회 총연합회장과 김점배 아프리카중동한인회 총연합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았다.

개회식에는 50개 국 한인회장과 한인회총연합회 임원 등 350여 명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 부의장,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등 70여 명의 국내 주요 인사를 포함해 총 4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덕 청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대회는 한인회장들 간 '교류와 소통의 장'에서 진일보하여, 국제 사회에서 나날이 위상을 높여 가는 우리 동포들과 본국이 함께 호흡하면서 한민족 공동체의 총체적 역량을 키워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동포사회가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해외 자산으로서 계속 성장하고, 동포 여러분들의 오랜 염원으로 탄생한 재외동포청이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많은 역경에도 타국의 주류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최일선에서 민간 외교관이 되어주고 계신 동포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동포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세계 각국 동포들의 애국심과 헌신은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드높였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



장은 차세대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차세대 육성은 동포사회가 극복할 문제이다. 재외동포 2·3세가 정치·경제계에 진출해서 거주국에서 명실상부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포사회가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자랑스런 우리동포, 함께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4일까지 나흘동안 열린다. 참가자들은 2일 오전 신규프로그램 '나의 조국, My Korea'에서 전문가 강연과 토크콘서트를 통해 역사와 문화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 온 원동력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었다.

또한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설명회'를 통해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게 되었다.

이어지는 '정부와의 대화' 1부에서는 재외동포청, 법무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해 주요 동포정책을 듣고, 2부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발제자로 나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강의를 청취했다.

대회 3일차인 3일(목)에는 △지역별 현안토론 △한인회 우수사업 사례 발표 △전체회의 △폐회식이 진행되었다.

대회 마지막 날인 4일 오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18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재외동포청 제공)

원더걸스 출신 혜림, 한국어 가르친다

세종학당재단-아리랑TV, 중급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제작

전세계 107개국에 방송 '케이챗: 한국 여행하기

(K-Chat: Travel in Korea)' 10월7일 오전9시 첫 방송

세종학당재단이 아리랑TV와 협력해 중급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제작, 전세계 107개국에 방송한다.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은 아리랑국제방송(사장 김태정, 이하 '아리랑TV')과 협력해 제작한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케이챗: 한국 여행하기(K-Chat: Travel in Korea)'가 10월7일 오전 9시(한국 시각) 아리랑TV를 통해 첫 방송된다고 2일 밝혔다.

'케이챗: 한국 여행하기(K-Chat: Travel in Korea)'(이하 '케이챗 시즌2')는 대한민국 여행 중 유용한 한국어 표현을 배우고자 하는 국외 시청자들을 위해 제작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다. 지난해 실생활 속 초급 한국어 표현들을 다룬 시즌1(K-Chat: Conversing in Korean)에 이어 이번 시즌2는 한국 여행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급 한국어 표현들로 구성됐다.

케이챗 시즌2에는 북미 8개 지역에서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케이팝 그룹 온앤오프의 멤버 효진, 승준, 와이엇을 비롯해 미국 NBC 방송의 음악 경연 프로그램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American Song Contest)' 초대 우승자인 알렉사도 출연한다. 이들의 상황극을 통해 다양한 실제 여행 상황에서 외국인 시청자들이 한국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케이챗(K-Chat) 한국 여행하기' 11회 방송화면. [세종학당재단]

총 24편을 2편씩 묶어 10분 분량으로 제작한 케이챗 시즌2는 11월 1일까지 4주에 걸쳐 매주 월·수·금요일에 아리랑 TV, 아리랑 World 채널뿐만 아니라 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세종학당재단 배종민 사무총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 시즌 2로 돌아온 '케이챗: 한국 여행하기(K-Chat: Travel in Korea)'를 통해 전 세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여행지 구석구석을 함께 여행하며 한국어와 우리 문화를 재미있게 학습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2024 재외동포 문학상' 대상에 장혜영(시) · 조성국(소설) · 이명란(수필 · 수기)

재외동포청, 26회 수상작 발표... 시, 소설,
수필 · 수기 3개 부문 13명 선정

2024년 재외동포 문학상 대상에 시 부문 장혜영(아랍 에미리트)의 '모시', 단편소설 부문 조성국(미국)의 '낙원에 있으리라', 수필·수기 부문 이명란(뉴질랜드)의 '이웃집 여자 린다'가 각각 선정됐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26일 이들 각 부문 대상 수상작과 함께 '제26회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작 총 13편을 선정해 발표했다.

발표는 재외동포청(oka.go.kr)·코리아넷(korean.net)·소통24(sotong.go.kr)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됐다.

수상자 13명에게는 총 3천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고 수상작은 작품집 '재외동포 문학의 창'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시상식은 12월 중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또한 '제18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10월 4일)'에서는 단편소설 부문 대상 수상자(조성국)가 수상 작품도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심사는 문태준, 정호승(이상 시 부문), 구효서, 은희경(이상 단편소설 부문), 박상우, 이경자(이상 수필·수기 부문) 등 한국 문학계를 대표하는 문인과 전문위원이 맡아 진행했다.

심사위원들은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재외동포들이 높은 수준의 작품을 제출해 심사가 매우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문학상 공모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 단편소설, 수필·수기 3개 부문에서 이뤄졌고, 전 세계 53개국에서 504명이 1천304편의 작품을 응모했다.

특히 올해 수상 부문과 상금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접수작이 84% 증가해 재외동포들의 한글 문학 창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재외동포 문학상은 재외 한인 문학도들의 작가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카디에프 문학상', '쿠프린 문학상' 등을 수상한 고려인 작가 박미하일 등 다수의 문인을 배출했다.

이상덕 청장은 "26년의 긴 역사를 가진 '재외동포 문학상'은 꾸준히 동포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는 전 세계에서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접수돼 재외동포 문학 저변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재외동포의 한글 문학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재외동포와 모국을 잇는 문화 교류의 장을 꾸준히 넓혀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외동포재청 제공)

민주평통 신규 상임위원 7명 임명 '탈북 외교관' 리일규 · 류현우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 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태영호)는 지난 9월 25일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등 총 5명에게 상임위원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불참한 김인식 유한노무법인 대표 등 2명의 신규 상임위원에게 차후에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5명 중 3명은 북한 출신으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 대리,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가 포함됐다.

탈북민 출신 상임위원 확대는 지난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탈북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의 주문을 적극 고려한 것이라고 민주평통은 설명했다.

임명장 수여 이후 진행된 환담에서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은 올해 초부터 탈북민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탈북민들의 정착 과정을 돕고 있다"면서 "앞으로 탈북민들의 역량을 통일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차원에서 탈북민들의 자문위원 위촉과 간부위원 임명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최윤정 세종연구소 부소장, 조경복 부산지구이북도민연합회 회장이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불참한 김인식 유한노무법인 대표와 탈북민 출신인 이현서 세븐 에셋 대표에게는 4분기 분과위원회 개최 시 별도로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고영훈 상임위원회 간사를 평통발전특별위원회 간사에, 윤종세 상임위원회 간사를 글로벌전략특별위원회 간사에 각각 임명했다.

이번 보궐 위촉된 제21기 상임위원의 임기는 내년 8월 말까지이며 각자의 전문성을 토대로 의장인 대통령에게 각 분과별 논의를 통해 정책건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참고로 민주평통 상임위원은 총 500명으로 통일·안보, 인권·탈북민지원, 국제협력 등 총 9개 분과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새로운 유형의 배구를 배웠다.

“재미있는 수건 배구 대회를 열었습니다. 팀들은 섞여 있었어요. 부모와 자녀가 한 팀을 이루어 함께 수건으로 공을 잡고 차는 시합을 했습니다.”라고 스웨틀라나 포포와 트레이너가 말했다.

이 날의 경기에 패자는 없었다. 지방 행정부는 이 관행이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전달된다면 흥미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Необычным волейболом отметили день рождения спортшколы в Углегорске

Спортивная школа в Углегорске отметила свой день рождения: любители спорта собрались в стенах здания и сыграли в полотенчатый волейбол.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вому виду волейбола учились воспитанники и их родители.

«У нас прошел турнир по веселому полотенчатому волейболу. Команды были смешанными. Родители объединились с детьми, пытаясь вместе поймать и отбить мяч полотенцами», — рассказала тренер Светлана Попова.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оигравших не было.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было бы интересно, если бы подобная практика перешла 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학교와 유치원, 선행 박람회 참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학교와 유치원이 선행 박람회에 참가했다.

교육 기관은 과일과 채소, 피클과 잼, 달콤한 제과류, 수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2번 리체이는 가장 큰 행사장이었다. 가장 아름다운 장식은 11번 유치원 “로마쉬카”, 35번 유치원 “스카즈카”와 14번 유치원 “라빈카”가 선보였다.

주최측은 아이들이 논리, 사고력, 미세 운동 기술 및 신경 감각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워크샵을 준비했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유즈노사할린스크 지역심리의료교육위원회의 전문가들과 사할린주 중앙 심리의료교육위원회 부장

이 상담을 하였다.

40만 루블리가 넘는 박람회 수익금은 장애 아동 치료와 검진을 위해 기부될 예정이다.

Школы и детсад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ярмарке добра

68 школ и детских сад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ярмарке добра.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города.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представили свою продукцию: овощи и фрукты, соленья и варенья, сладкую выпечку, а также изделия рукоделия. Самую большую площадку представил лицей № 2. Самое красивое оформление - у детских садов № 11 «Ромашка», № 35 «Сказка» и № 14 «Рябинка».

Для малышей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развитию логики, мышления, мелкой моторики, а также нейро-сенсорики. Для родителей детей, имеющих трудности в освоени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консультации давали специалисты ТПМПК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ЦПМПК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рученные на ярмарке средства, а это более 400 тысяч рублей, передадут на лечение и обследование дет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네벨스크, 익스트림 '챔피언 달리기' 열려

네벨스크에서 “노동과 방위를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익스트림 “챔피언 달리기”대회가 열렸다. 이는 지방 행정부 홍보실이 보도했다.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스포츠 이벤트에 참가했다. 이들은 해발 162미터 고도에 위치한 십자가까지 달려야 했다. 이 경주에는 네벨스크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방문객들도 참석했다.

В Невельске прошел экстремальный «Забег чемпионов»

В Невельске провели экстремальный “Забег чемпионов”, который прошел в рамках комплекса “Готов к труду и обороне”.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района. Участниками спортивного события стали больше 50 человек. Им предстояло бежать до поклонного креста, который находится на высоте 162 метра над уровнем моря. В забеге участвовали не только невеличане, но и гости из других районов.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이예식 기자님께 드리는 축하문



75회 생신을 맞으신 이예식 선생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고려신문사에서 공식적으로 35년을 사진기자로 일해왔지만 한글신문 사진 투고는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했습니다.

사할린한인 1세대를 주제로 하는 그의 흑백 사진은 예술이며 역사의 증명입니다. 새고려신문 기자로서 한민족지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어려운 시기에 늘 함께 있어서 신문에 대한 애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문과 동갑이신 이예식 선생님, 늘 건강하시고 자녀와 손주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며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25 г. — 692 руб. 9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l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